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40 웰컴 투 시월드(재) 5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획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소치 2014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3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굿모닝 소치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30 MBC 생활뉴스 45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뜨거운 소치 1부	10 소치 2014 하이라이트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튼튼 생활체조(재)			40 소치 2014특집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우리말 겨루기(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45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0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2	30 모큐드라마 〈싸인〉(재)	00 KBS 뉴스12	55 영화가 좋다(재)	00 MBC 정오뉴스 2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뜨거운 소치 2부	00 소치 2014특집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40 뉴스 추적자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석			30 SBS 생활경제 45 KBC 생활뉴스
2	5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재)	00 소치 2014특집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두리둥실 뭉게공항(재) 55 TV 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쿡 원정대 40 헬로 키즈 공룡이 살아있다!	10 SBS 이슈 인 사이드
4	0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튼튼 생활체조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 컬링 여 3, 4위전	30 2014 소치동계올림픽 -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스키 크로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SBS 뉴스특보 〈이산가족 1차 상봉〉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30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이브닝 뉴스	
6	0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20 도전! 발명왕	05 날씨와 생활 10 생활의 발견 유레카(재)
7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부부극장 콩깍지(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소치 2014 특집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베란다 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 컬링 여 결승	00 수목 드라마 〈감격 시대〉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	00 드라마 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11	00 웰컴 투 시월드		1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 피겨 여자 싱글 프리 〈김연아 출전〉	15 2014 소치 동계올림픽 - 피겨스케이팅 여 싱글프리 - 스노보드 여 하프 파이프	15 소치 2014 - 피겨 여 프리 - 프리스타일 스키 여 하프 파이프 결선
12	20 이영돈·신동엽 젠틀맨(재) ①:3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②: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 아이스하키 여 결승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재)
07:00 곤(재)
07:15 마야의 모험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모야모야(시즌2)
09:05 코코몽2(재)
09:20 생활의 비법
10:00 한국기행 〈강원도〉(재)
10:20 명의의 건강비결 〈당신의 심장을 지켜라〉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헝가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3:05 지식채널e
13:1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20 사이틴
13:30 모피와 친구들
13:45 꼬마 철학자 휴고
14:00 잘난 체리우스 박사님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4:30 몬스터 수학나라
15:00 피터팬
15:30 바두와 친구들
15:45 똑똑박사 에디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아기 고릴라 둥둥
16:30 코코몽2
16:45 모야모야(시즌2)(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꼬마버스 타요
1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45 로보카 폴리
18:00 두다다쿵
18:15 곤
18:3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30 TV로 보는 원작 동화
20:00 EBS 뉴스
20:20 직업의 세계-일인자
20:50 세계테마기행 〈필리핀〉
21:30 한국기행 〈여자만〉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22:45 극한직업
23:15 EBS 역사특강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Ⅰ〉
00:50 〃 〈국어Ⅱ〉
01:40 〃 〈영어독해의 기본Ⅱ〉
02:30 〃 〈수학Ⅱ〉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04:10 〃 〈과학〉
05:00 〃 〈한국지리〉(재)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Ⅰ〉
07:30 2014 포스 〈문학Ⅱ〉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Ⅱ〉(재)
09:10 〃 〈수학Ⅱ〉(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11:4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2:10 5분 과탐·지구과학Ⅰ
12:15 수능 특강 〈수학Ⅰ B형〉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14:00 〃 〈국어 B형〉
14:50 〃 〈영어 A형〉
15:40 〃 〈영어 B형〉
16:30 〃 〈한국지리〉
17:20 〃 〈사회문화〉
18:10 〃 〈경제〉
19:00 〃 〈윤리와 사상〉
19:50 5분 과탐·지구과학Ⅰ(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21:00 〃 〈영어 A형〉(재)
22:00 〃 〈영어 B형〉(재)
23:00 수능특강 〈한국지리〉(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교육학 논술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영어①〉
10:30 〃 〈도덕②〉
11:10 〃 〈국어③④〉
11:50 〃 〈영어②〉
12:30 중학 1학년 학습비법 특강 〈사회〉
13:10 중학 2학년 학습비법 특강 〈사회〉
13:50 TV 중학 〈영어②〉(재)
14:30 〃 〈국어③④〉
15:10 스쿨랜드
15:20 만점왕 〈과학③-1〉
15:50 〃 〈과학④-1〉
16:20 〃 〈과학⑤-1〉
16:50 〃 〈과학⑥-1〉
17:20 초등 개념잡기 〈과학〉(재)
17:50 스쿨랜드(재)
18:00 TV 중학 〈역사(하)〉
18:40 〃 〈사회③〉
19:20 〃 〈국어①②〉(재)
20:00 〃 〈영어①〉(재)
20:40 〃 〈도덕②〉(재)
21:20 〃 〈국어③④〉(삼)
22:00 〃 〈역사(하)〉(재)
22:40 〃 〈사회③〉(재)
23:20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엄마가 편하게 보는 작품 하고 싶었다"

KBS 2TV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주인공 맡은 김희선

사진 왼쪽부터 이서진·김희선·옥택연.

오랜만에 주말극으로 돌아온 배우 김희선은 "엄마가 편하게 보는 작품을 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18일 열린 KBS 2TV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한살한살 나이를 먹으니 엄마가 밤 11시까지 하는 미니시리즈는 못 기다리신다"며 "엄마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작가와 동료 배우들을 만났다"며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참 좋은 시절'은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연작드라마 '떨리는 가슴' 등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그린 이경희 작가가 쓴 작품으로, 검사가 되어 남루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의 이야기다.

김희선은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랐지만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집안이 망하고 아버지를 망하게 한 대부업체에 취직해 억척스럽게 사는 해원 역을 맡았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첫사랑 동석이 15년 만에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요즘 '막장', '막장'하는데 옛날의 '아들과 딸'처럼 소박하면서 따뜻하고 좋은 드라마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희선은 "이렇게 억척스러운 역도 처음이지만 사투리까지 써야 해서 더 어렵다"며 "경주에서 나고 자란 역할인데 지역에서만 쓰는 단어들을 잘 몰라 헤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상남도와 북도 사투리도 다르고 경상도 사람이 들으면 맞는데 서울 사람이 들으면 어색하고, 연령대마다 다르다"며 "경상도 출신 배우가 많아 다들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tvN의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로 다시 주목받으며 3년 만에 TV 드라마에 복귀하는 이서진은 "많은 분이 편하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다"면서도 "3월 초에 '꽃보다 남자' 시즌2가 시작하는데 드라마 역할과 너무 다른 이미지라 걱정"이라고 밝혔다.

주인공 강동석 역을 맡은 그는 "예전 같으면 몸이 먼저 나가는 강동희(옥택연 분) 역이 멋있어 보이고 그 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역이 아닌 것 같다"며 "지금까지 액션이 없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라 액션도 없고 말도 없어 편해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크린 복귀 21년만이라니 저도 놀라워요"

영화 '우아한 거짓말' 제작보고회 김희애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21년 만이라니 저도 놀라워요."

오랜만에 스크린에 나들이 한 배우 김희애는 이렇게 말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18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우아한 거짓말'의 제작보고회 자리에서다. 김희애의 영화 출연은 '101번째 프로포즈'(1993) 이후 21년 만이다.

영화는 평범했던 14살 소녀 천지(김향기)가 갑자기 자살하고 나서 남겨진 엄마(김희애)와 언니(고아성)의 이야기를 담았다. 천지의 자살을 가족들이 추적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완득이'(2011)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김려령 작가와 이한 감독이 다시 같이 하는 작품이다.

김희애는 "일단 이한 감독이 만든 '완득이'를 재밌게 봤다. 가볍지 않은 스토리였지만 재밌고, 행복감을 안겨줬다"며 "그런 기억 때문에 이한 감독과 꼭 한 번 작업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아한 거짓말'은 우리 주변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거나 혹은 겪었을 법한 이야기다.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내 아이가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다"며 "비단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한 감독은 "원작을 읽었을 때 좋았지만 처음에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 사건이 조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내용이 맴돌았다"며 "저처럼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 만들어야 할 영화라고 생각해 연출을 맡았다"고 말했다.

영화는 유비유필름이 제작했으며 다음 달 13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1월 21일 壬戌)

子 36년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48년생 다시 해야겠다. 60년생 고난의 행로는 미래를 여는 훈련장이 되리라. 72년생 주마가편해야 한다. 84년생 찰흙은 물기가 있는 동안 빚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3, 09

丑 37년생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49년생 무리한다면 손재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61년생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73년생 변수가 보이지만 지나쳐도 되느니라. 85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5, 86

寅 38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대응이 있다. 50년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니라. 62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자. 74년생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9, 56

卯 39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51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63년생 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제거하자. 75년생 상당한 부담이 따를지라도 보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2, 51

辰 40년생 뒤늦게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52년생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으리라. 64년생 봉합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76년생 소폭적이나마 발전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1, 46

巳 41년생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니 진지하게 대처해야겠다. 53년생 부실한 모습이므로 잘 살펴보자. 65년생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77년생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형국에 휩쓸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9, 17

午 42년생 시간이 있을 때 관리를 잘 해 두자. 54년생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8년생 많이 안다는 것 차체가 큰 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65

未 43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55년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서식하지 않는 법이다. 67년생 시선 집중을 받을 수도 있다. 79년생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9, 71

申 44년생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느니라. 56년생 한파가 도사리고 있다. 68년생 흥미 위주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80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76

酉 45년생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돌이켜 보자. 57년생 다양하게 세분화되면서 체계가 서게 되리라. 69년생 상황을 잘 살펴 본 후에 행하자. 81년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90, 30

戌 46년생 불합리한 군더더기는 폐기하는 것이 백 번 나을 것이다. 58년생 실속도 챙아라. 70년생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82년생 세밀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77, 91

亥 47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처지이다. 59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니라. 71년생 적절한 방안을 분명히 찾게 되리라. 83년생 얕잡아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93, 7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파이프오르간 장인 홍성훈씨

직업의 세계-일인자(EBS·오후 8시20분)=장구한 역사와 웅장한 외양을 갖춘 서양의 전통악기 파이프오르간. 수많은 파이프를 통해 울리는 폭넓은 음역으로 약 20만 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파이프오르간은 '한 대의 오케스트라'로 불린다. 여기 30여 년간 파이프오르간 제작에 힘써 온 한국인이 있다. 독일이 인정한 장인, 파이프오르간 마이스터 홍성훈. 그의 투철한 장인정신, 음악과 예술에 대한 불타는 신념과 열정을 만나본다.

흥사단과 시립가무단 활동을 하던 홍성훈은 1986년, 클래식 기타를 배우러 간 독일에서 파이프오르간의 아름다운 선율에 단번에 매료됐다. 1998년 귀국한 홍성훈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파이프오르간은 모두 12대로, 그는 지금도 국내 파이프오르간 제작의 역사를 쓰고 있다.

홍게, 그 화려한 맛의 성찬

한국인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속초 토박이 장순여씨. 그녀에게는 30년이 넘게 홍게와 동거 동락한 세월이 있다. 아직은 배고프던 시절, 트럭 가득 홍게를 싣고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 봤지만 알아주는 이가 없어 홍게를 버리기도 많이 버렸다. 숱하게 눈물도 흘렸지만 홍게를 놓을 수는 없었다.

홍게 살의 탱탱함과 내장의 고소함, 국물의 깊은맛을 알기에 자신이 있었다. 익혀 먹어도 날 것으로 먹어도 200% 매력을 발휘한다는 홍게, 그 화려한 맛의 성찬을 만나보자. 60~70년대 부산과 맞먹는 어획량을 자랑하던 수산도시 속초. 배타는 함경도 아바이를 만나 속초에서 살다 보니 녹초가 되었다는 이귀순 할머니를 만나 그녀의 애환이 담긴 홍게 밥상을 차려본다.

'처수성가'를 위한 남자의 조건

웰컴 투 시월드(채널A·밤 11시)=못 사는 처가보다 잘 사는 처가가 나은 법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 아들 어려울 때 든든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처가가 최고라는 시월드. 반면 처가 덕 보는 사위들은 기죽고 눈치 보며 살기 마련이다. 친정 돈 없다고 눈치 주고 무시하는 시월드가 야속한 며느리들.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 장인어른을 둔 김종서는 결혼과 동시에 장인어른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했다. '처수성가'의 제안을 거절한 까닭은.

시월드 입성 3개월 차 자수성가 며느리 안선영은 평소 그녀의 TV 활동 모습을 눈여겨봤던 재벌가의 사모님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다고 한다. '처수성가'를 위한 남자의 조건을 알아보자.